

어린이 재단 운동 벌이는 독일의 68세대들

격년지 《낯선 세계》에 제3세계 어린이책 소개해

이정모 | 북메세 에이전시 유럽지사장

요즘 우리나라 어린이책은 필자가 어린 시절 읽던 어린이책과는 판판이다. 이것은 흔히 386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이 어린이책의 주요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돼서 어린이책을 질적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일 것이다. 386세대들은 자신들이 20대에 들어서야 경험할 수 있었던 새로운 가치관을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린 시절에 접할 수 있도록 '교육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세상은 어디나 비슷비슷한 면이 있다. 하나씩 따지고 보면 다른 것 같지만, 조금만 떨어져서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386세대가 있다면 독일에는 68세대가 있다. 386세대는 이제 엄마·아빠가 됐지만 68세대는 할머니·할아버지가 돼가며, 68세대로부터 새로운 교육을 받은 이들이 생산과 소비를 결정하고 있다.

비유럽 작가 책 출판하는 바오밥 재단

제2세계를 동경했던 68세대들은 그들의 좌절한 혁명의 열정을 바탕으로 제3세계를 그들의 시야로 끌어 들여왔다.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많은 어린이책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를 배경으로 하거나 소수 인종들이나 외국인들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뛰어난 책들도 있지만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책들도 꽤 많다. 그래서 어떤 책들은 그들을 왜곡, 단순화시키거나 양식화시켜 표현하면서 마치 유럽인들보다 열등한 사람들로 묘사하기도 한다. 이렇듯 자민족 중심주의, 인종주의, 우월감 같은 것들이 교묘하게

포장돼 어린이책에 등장하는 예가 결코 드물지 않다.

68세대에게 고민이 생겼다. "이런 가운데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또 이들은 그 해결방법을 찾았다. 방식은 혁명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이들은 1984년 《베른 성명》 및 《스위스 사람의 땅(terre des hommes)》의 한 분과로 어린이책 재단을 설립해 '바오밥'이란 이름을 붙였다. 비록 《어린 왕자》 때문에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던지기도 하지만 아프리카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공간을 만들어주는 아주 친근한 나무다. 이들은 이 기금으로 매년 2~3종의 비유럽 작가 책을 출판하면서, 한편으로는 《낯선 세계 (Fremde Welten)》란 격년지를 발행한다. 이 잡지에 소개된 도서 목록에는 바오밥 어린이책 재단 소속 회원들이 추천한 약 3백여종의 아동 및 청소년 도서와 시청각 매체가 실려 있다. 책들은 대륙별로 분류돼 있고, 간단한 내용과 함께 독자 연령층도 표기됐으며, 아울러 서두에는 도서 선정 기준도 제시돼 있다. 또 이들은 매년 '낯선 세계'와 '인종주의'를 다룬 책을 대상으로 《파란 코브라 (Die Brillenschlangen)》라는 아동·청소년도서상을 시상한다.

《낯선 세계》의 목록에 오른 책들은 대부분 유럽인이 아니라 제3세계 작가의 작품들이

다. 따라서 제3세계를 올바르게 이해시킬 수는 있지만 유럽인들에게 낯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모들과 교사들은 이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아이들에게 읽어줌으로써 제3세계의 해석에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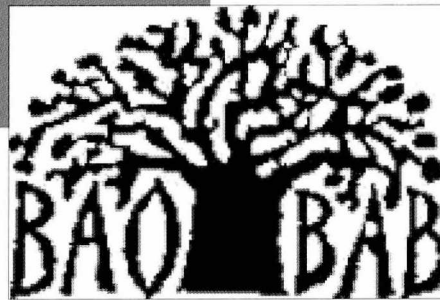
제3세계 책으로 '낯선 세계' 보여줘

필자의 딸 친구 가운데는 동생 이름이 '바토메네'라는 아이가 있다. 외할머니가 지어준

이 이름은 아프리카에서 따왔다. '모든 것이 제대로 돼 있어'라는 뜻이다. 서른살에 68을 맞았던 그 할머니는 자신의 세대가 무질서한 반항의 세대가 아니라 '세상을 제대로 바라본' 세

대였다는 것을 이 이름으로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바토메네는 1학년이다. 딸아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매년 (1월에 시작하는) 2학기 한 테마를 선택해 공부한다. 지난해에는 '동물원', 올해는 '낯선 세계'가 그 테마였다. 독일어, 사회와 자연, 수학 같은 수업이 '낯선 세계'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학년말을 맞아 열린 (우리의 학예회와 비슷한) 이번 여름 축제의 테마는 당연히 '낯선 세계'였다. 필자의 딸이 속한 3학년은 프랑스를 선택해 프랑스 동요를 불러 독일어로 불렀고, 미국을 선택한 4학년은 너무나 어색한 램을 불렀다. 2학년은 터키의 배꼽춤을 그리고 바토메네가 속한 1학년은 화분과 도화지로 만든 북으로 아프리카의 리듬 음악을 공연했다. 부모들은 이 '낯선 세계'의 음식을 사먹으며 아이들이 공연하는 '낯선 세계'를 함께 경험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영어를 배우고 독일과 프랑스의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을 함께 보며 자라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낯선 세계'는 어디일까? ■



바오밥나무를 형상화한 바오밥재단의 로고. 바오밥재단에서 선정한 도서의 표지에도 이 로고가 붙는다.